

GUC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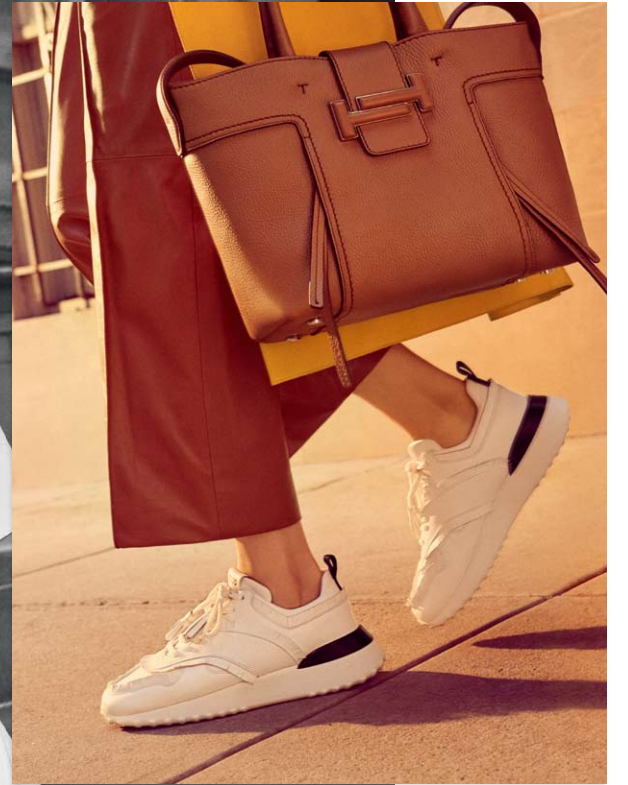
#GucciCollectors

gucci.com

Style

조선일보

SEPTEMBER 2018
vol.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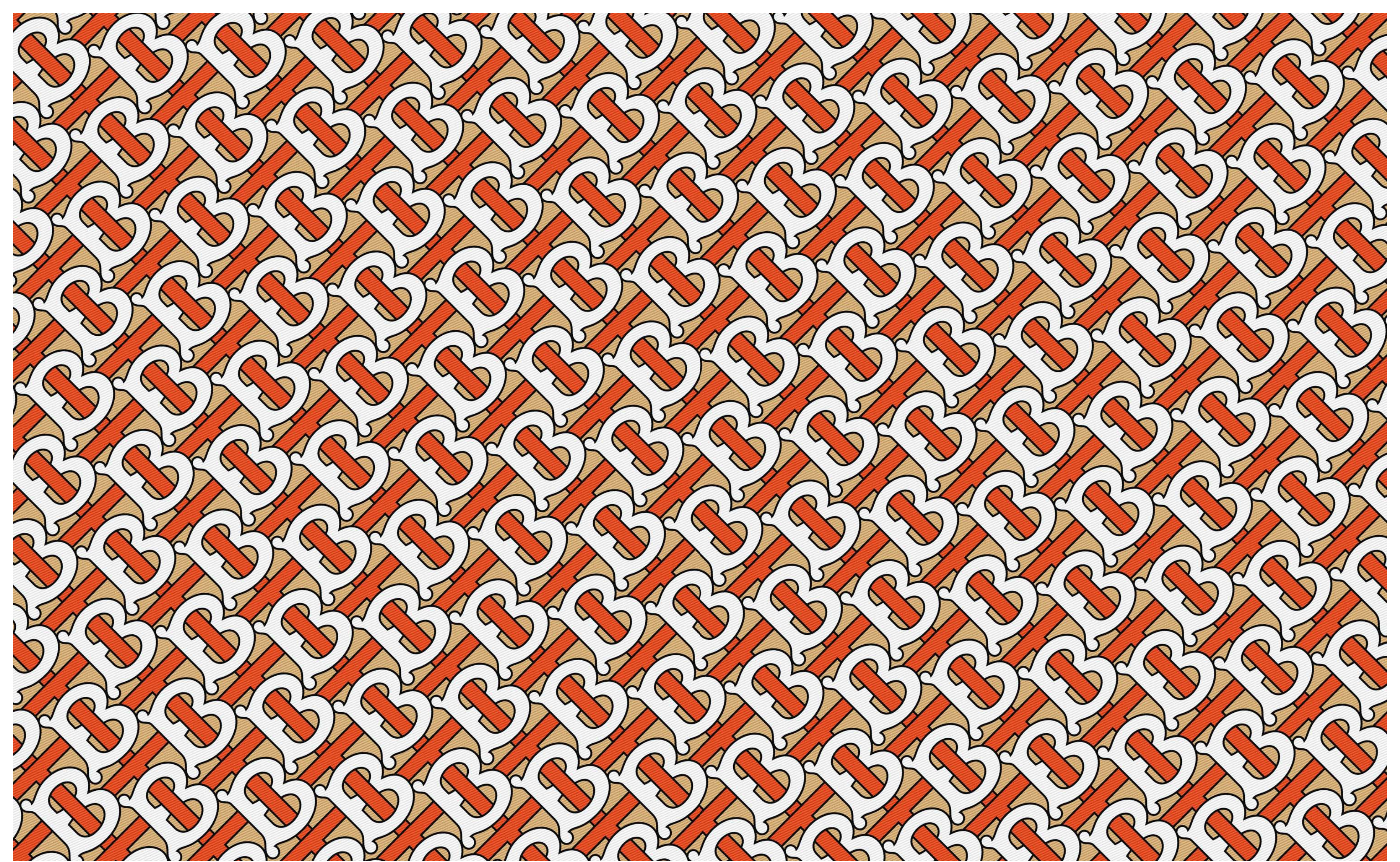
#CIAOBYTODS

TOD'S
MADE IN ITALY
Ciao!

Cartier

JUSTE UN CLOU COLLECTION





BURBERRY

LONDON ENGLAND

17 SEPTEMBER 2018



Salvatore Ferragamo





36



38

Style **조선일보**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장인 장신이 문보에는 이탤리아 럭셔리 브랜드 토즈(Tods)에서 2018~19 F/W 시즌 데블 T 라인업의 새로운 모델로 선보인 데블 T 소프 백이다. 화이트, 레드, 브라운과 그레이 등 다양한 컬러의 클래식 라인과 패치워크 또는 시어링 소재로 이루어진 스포츠 라인도 선보인다. 문의 02-3438-6008



26



12

- 16 **기억과 자유의 도시 미학, 예술이 풍경을 바꾸다** 도시를 기억해 변화의 흔적을 통해 상징하는 거대한 인공물이라고 한다. 살아 있는 유적에 곧잘 비유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빛 고을 광주에서 그 변화의 중요한 한 축은 예술이 맡아왔다. 1995년 첫 행사를 치른 이래 20년이 훌쩍 넘도록 자리를 지켜온 현대미술 축제 광주비엔날레가 그 중심에 있다. 사실, 처음에는 우려도 많았다. '예술의 자부심을 실려 역사의 깊은 상처를 문화 예술로 승화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당시 광주는 작은 시립 미술관 하나 고작일 만큼 현실적인 인프라가 열악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기반이나 지역 인구 규모에서도 글로벌 행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하는 사선이 있었다. 하지만 광주는 보란듯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비엔날레의 도시로 거듭났다.
- 18 **LOVE NEW IT BAG** 유려한 곡선과 차분한 색조, 아티스틱한 터치로 율가를 당신의 마음속에 새롭게 자리 잡을 2018 F/W 여성 뉴 백 컬렉션.
- 22 **EDITOR'S PICK** 가을을 담은 서정적인 컬러부터 소장하고 싶은 케이스까지, (스타일 조선일보)가 꼽은 뷰티 리스트.
- 24 **DEEP IMPRESSION** 기품과 아름다움을 갖춘 현대적인 예술품으로 불릴 만큼 정교한 장인의 손길, 아름다움의 가치를 담은 하이 주얼리 컬렉션.
- 26 **THE SPIRIT OF FALL** 찬 바람과 함께 찾아온 아우터웨어의 계절. 가을의 무게를 흔쾌히 느껴라. 기분 좋은 터치와 사진이 함께한 LA 스토리.
- 34 **2018 BLUE BOOK**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럭셔리 하우스 티파니의 1백81년 역사와 창조 정신, 장인 정신, 그리고 혁신을 담은 2018년 블루북 컬렉션 (티파니의 사계를 (스타일 조선일보)가 지난 7월, 홍콩에서 직접 확인했다.
- 36 **HER TIME, HER CHOICE** '그녀의 시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말라노, 파리, 뉴욕을 비롯한 특별한 도시에서 연이어 열려 보는 이들을 사로잡은 (Her Time) 전시. 최근엔 신비로움을 간직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려 그 아름다움 스토리를 함께 할 수 있었다. 여성, 시계, 그리고 오메가에 대해 도돌이킬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
- 38 **THE ART OF RESONANCE** 많은 이들이 와인을 말할 때 과학을 언급하고, 예술을 논하고, 철학을 꼬집어낸다. 물론 그런 지식은 도움이 된다. 즐거운 대화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그럴듯한 표정이 점점 두꺼워지면 창작 그 속에 담긴 아름답고 풍부한 것들을 포착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원래는 충분히 친근하고 다정다감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아마도 그래서 도도한 '스펙을 내세우기'보다는 다 내려놓고 마음 편히 음미하려는 메시지를 유난히 강조하는, 그리고 이를 창의적으로 실천하는 샴페인 브랜드가 눈에 더 들어오지도 모르겠다. 애정의 밀도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렬한 전 세계 팬들을 다수 거느리고 있는 샴페인 명가 크루그(Krug)의 얘기다.
- 42 **SELECTION for living** 복잡다단한 사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거주 장소와 장식을 배제하고 본질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기능과 심미적 요소를 고려해 최소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아티템.

Style **조선일보**

Issue.178 September 2018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zy@chosun.com 어시스턴트 | 김은서 이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정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티라티피에스
 발행처 |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HERMÈS
PARIS

play it like Hermès

Publicis EtNus



포토그래피 박인주

Jewel THE BEAUTIES OF NATURE

유색석은 온전히 자연이 선사한 아름다움의 산물이다. 천연의 컬러가 주는 환상적인 매력.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채 모티브에 그린 투르말린을 세팅한 디바스 드림 링 5백만원대 **블가리**, 영롱한 탄자나이트의 아름다움이 인상적인 페이퍼 플라워 다이아몬드 & 탄자나이트 플라워 링 가격 미정 **타미니**, 산뜻한 그린 컬러의 루비노 페도르도 링 2백만원대 **타사키**, 반딧불이의 생명력을 옐로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페이퍼 플라워 옐로 다이아몬드 파이어플라이 펜던트 가격 미정 **타미니**, 그린 아벤추린으로 산뜻함을 표현한 카투스 드 카르피에 아이젠 1천5백만원대 **카르피에**, 에디터 **베아진**



포토그래피 박인주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슬기로운 공유로 친란한 공생을 도모하다, '무신사 스튜디오'

공유 오피스 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패션, 커머스,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아교라'를 표방하는 공간이 생겨 눈길을 끈다. 서울 동대문 현대타워타워에 들어선 공유 오피스 '무신사 스튜디오'였다. 온라인 패션 커머스 기업 무신사가 패션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인, 브랜드와 브랜드가 만나 보다 창의적이고 특별한 협업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포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다. 그래서 대규모 원단 시장과 도·소매 매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도심 아웃렛 등이 자리한 패션 산업의 심장부인 동대문을 첫 가정으로 택했다. 현대타워타워 4개 층에 걸쳐 있는 무신사 스튜디오는 많게는 1천2백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잠금장치가 있는 독립된 사무실 '프라이빗 오피스', 공유 오피스 내에 지정 좌석으로 사용 가능한 '핫 데스크', 매일 유통적으로 자비를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오픈 데스크' 등 다양한 형태의 사무 공간을 구비했다. 이중 프라이빗 오피스는 1백90여 개로, 2인실부터 20인실까지 갖추었다. 각종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창작을 위한 소품, 넓은 작업대가 놓인 워크룸, 간단한 수선과 패턴 작업이 가능한 테일러룸 등 패션 크리에이티브에게 특화된 맞춤 서비스가 돋보인다. 또 첨단 사무 기기를 제공하는 O.A 공간, 업체 상담 시 필요한 폰 부스, 연계된 택배 회사를 통해 물량이 상권없이 1천여명에게 택배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스마트 환경도 준수하다. 무자하게 신발 사재기 많은 곳이라는 뜻의 온라인 동호회로 출발해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성장해오면서 이야기를 대표하는 패션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무신사는 앞으로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는 차원에서 강연, 홈데 등으로 공유 오피스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에디터 고성연**



포토그래피 박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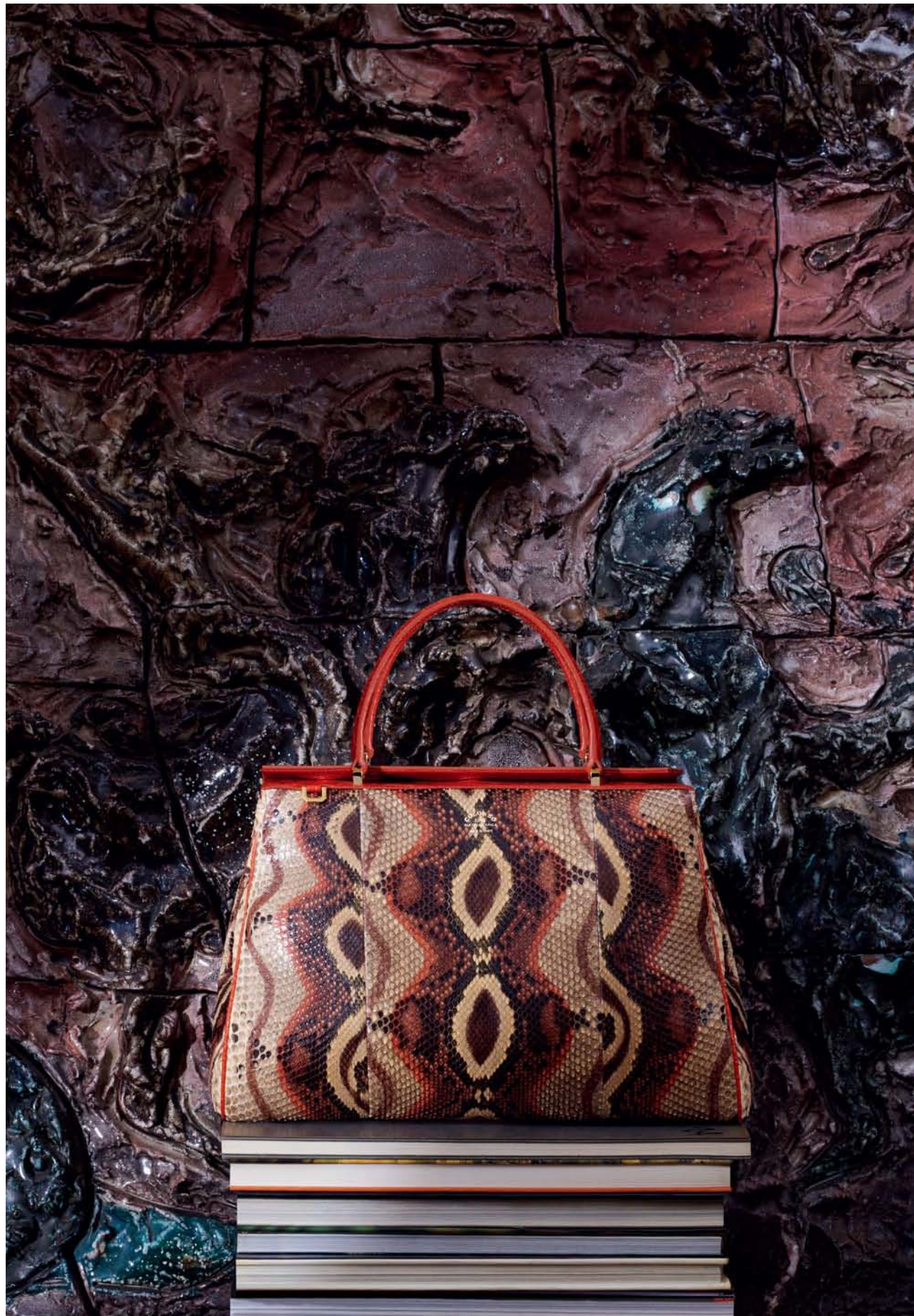
Beauty COUTURE BEAUTY

여성의 우아한 아름다움과 관능미를 끌어올리고 동시에 뛰어난 에티켓을 더하는, 진정한 쿠투르 코즈메틱 브랜드들이 국내에 상륙했다. 럭셔리 쿠투르 패션 브랜드 자형사의 패션 코드와 DNA를 담은 자형사 뷰티와 세계적인 뷰티 크리에이티브 세르주 루텐이 론칭한 '세르주 루텐 메이크업 라인'을 드디어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 컬러, 제형, 패키지가 시크함의 정점을 이루는 새로운 뷰티 브랜드에 주목하라.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죽 케이스에 새긴 로고 디테일만으로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자형사 뷰티는 국내에는 이제야 첫선을 보이지만, 1989년부터 역사를 이어온 프랑스의 대표 리얼 쿠투르 뷰티 브랜드다. 늘 대담하면서도 우아한 룩으로 사랑받는 자형사 하우스의 DNA를 고스란히 담아 클래식하면서도 아이코닉한 쿠투르 코즈메틱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컬러의 파우더를 한데 모은 **지방시 프리즘 리브르**는 자형사 뷰티의 베스트셀러 아이템으로, 화이트, 블루, 그린, 핑크 등 네 가지 파우더가 조화를 이뤄 어떠한 톤이건 피부 결정을 확실하게 케어한다(3gX4 8인2인용). 시르주루텐 핑크 가죽 패키지가 돋보이는 **자형사 멀티 루즈 파운데이션**은 높은 수분력과 입술 주변의 색을 살리는 은은한 발색, 볼륨 효과까지 갖춘 3 in 1 쿠투르 합판이(2, 2g 4인용전용). 자형사 뷰티의 아이코닉 콤팩트인 컬러 연 블랙 가죽 패키지의 립스틱, **자형사 리 루즈 인텐스 컬러 섀슈알리 및 립 컬러**다. 대담하고 우아한 컬러 팔레트로 구성된 블랙 패키지의 립스틱으로, 컬러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물론 입술에 바르지 않은 듯 가볍고 편안한 텍스처가 돋보인다(3, 4g 4인용전용). 나치 황후 브랜드로 익히 알려진 세르주 루텐은 조형사에게 앞서 다룬 메이크업 크리에이티브 디테일이자 시세노드의 첫 메이크업 컬렉션인 콘셉트를 담은 세계적인 뷰티 크리에이티브는 사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뷰티 크리에이티브로서 그의 친화적 인간미를 담은 세르주 루텐 메이크업 컬렉션은 그의 영수인물이나 매혹적이다. 세르주 루텐을 대표하는 제품 중 하나인 한 울 풍성하고 색이 찬 하이힐처럼 아찔한 속눈썹을 연출해주는 **세르주 루텐 실 섀도우 마스크라**다. 이틀에서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섀도우로 감싼 것처럼 길고 매끄러운 속눈썹을 완성한다(11ml 6인용전용). 콤팩트한 크기로 작은 클라켓에도 쏙 들어가는, 리프트와 호환이 가능한 립스틱인 **세르주 루텐 파 아 레브르**는 한 번의 터치만으로 뛰어난 발색과 발림성으로 섀도우를 완벽히 립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대담하고 선명한 컬러부터 내추럴한 누드 컬러까지 다양한 세이트로 선보이는데, 컬러가 하나같이 고급스럽고 우아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2, 3g 8인용전용). 피아노 건반처럼 만든 4구 세트 팔레트, **세르주 루텐 파 아 레브르** 역시 세르주 루텐만의 감성을 담은 대표 제품이다. 실용하면서도 클래식한 네 가지 컬러로 자연스러운 음영 아이 메이크업부터 강렬한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4g 17인용전용). **에디터 권유진**

Exhibition 잊힌 공연 예술 장르 '여성 국극을 파고든 정은영, 올해의 작가상' 주인공

해마다 이른 가을이면 미술계의 화제로 떠오르는 '올해의 작가상'(Korea Artist Prize)의 2018년 수상자로 여성 국극을 둘러싼 연구와 조사, 분석에 기반을 둔 예술 프로젝트를 지휘한 정은영 작가가 선정됐다. 이로써 정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이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을 제시할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SBS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해온 '올해의 작가상' 일곱 번째 수상자가 됐다. 여성 배우로만 공연하는 여성 국극은 1960년대에 대중적 인기를 누렸지만, 전통극으로, 현대극으로도 지리 지쳐 못한 채 잊힌 장르. 정은영 작가는 생활 규범과 문화의 동시대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구성되는지 밝히는 중요한 민족지로서 여성 국극을 연구해왔는데, 이번 '올해의 작가상 2018' 전시에서 신작 6점을 비롯해 영상과 아이카보, 설치 등 모두 11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그는 여성 국극 원로 배우들의 사진과 친필 액자, 공연 영상 등을 중심으로 한, 작가만의 구성이 돋보이는 '보류된 이야기'라는 작품을 통해 단순한 사적 자료의 나열이 아니라 창조적 이야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장 수잔 코테우당 룩셈부르크 관장은 "정은영의 시도가 현대미술의 형태를 빌려 사회자기는 전통 예술을 다룬다는 점, 그리고 성 정체성이라는 화두를 무대 형식의 예술로 풀어낸 점이 돋보였다"라고 평했다. 올해의 작가상 2018 후보로는 권유진, 정재호, 옥인콜레트 등이 함께 올랐으며, 이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11월 25일까지 열린다. 최종 수상자인 정은영 작가는 내년 메나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참여할 예정이다. **에디터 고성연**



HOTEL SHILLA ARCADE SHINSEGAE MAIN GANGNAM CENTIUM CITY HYUNDAI MAIN COEX BUSAN DAEGU LOTTE AVENUE AVENUE WORLD TOWER GALLERIA LUXURY HALL EAST AK PLAZA BUNDANG STORE T 02-2330-1225 WWW.COLOMBOVIADELLASPIGA.COM

COLOMBO 1955 VIA DELLA SPIGA MADE IN ITALY



for her
Selection

체크부터 도트, 레오파드 등 차분한 가을 팔레트에
위트를 더해줄 2018 F/W 뉴 패턴 아이템.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타이거 패턴
보디에 레오파드
프린팅 코팅을
가미해 강렬한
인상을 자아내는
토티. 35x27cm,
1백57만원 마이클
코이스 컬렉션.

브랜드의 상징적인 체크 패턴에
올려 가늠을 더해 앙상한
세모의 키링 30만원 배너,
사우베르 시스텔 키링 1백10만원 다들.

발등 위에 앙상한 도트 패턴을 올린,
시스텔 시스텔 키링 1백10만원 다들.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직 미진 보타기 배너.

은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마이클 코이스 컬렉션 02-546-6090
삼보토레 패라카모 02-3430-7854
마놀로 블라바 02-3443-2113
구찌 1577-1921
토즈 02-3438-6008
한스타일컬렉션 02-517-4789
보타기 배너 02-3438-7682
루이 비통 02-3432-1854
프라다 02-3218-5331
다들 02-3480-0104
분다살 02-2056-1234
아이그너 02-546-7764
버버리 080-700-8800
마유미유 02-3218-5331

두가지 컬러가
반강이 교차하는
체크 플레그 패턴의
하이 네크라인 니트
1백50만원, 재킷
세백만원 모두 구찌.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레오파드 패턴의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가늠이 있는 패턴이 새겨진 벨을



CANALI
1934

SEOUL Hyundai Trade Center | SEONGNAM Hyundai Pangyo, Tel. 1544-3966





낙서를 모티브로 한
두들(doodle) 패턴이
새가진 선글라스 30만원대
바버리 by 루스타카.

리미와 바진
울 소재의
자브라
패턴 백팩.
33X40cm,
1백60만원대
생 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플러시고 모티브를
받은 30톤스나즈
10만9천원대
타이퍼피거.

쿠제 시그니처 로고
패턴이 뉴욕 양악 조를
상징하는 NY
상하의를 7만
7천원대 구찌.

보네펀의 100% 면제 코튼
포인트의 티셔츠. 볼 모티브가
아래쪽 라인을 강조하는
9만2천원대 타이퍼피거.

가벼운 모티브를
에어쿠트로 표현한
공용형 헤어핀이
무엇인지와 매모리시나
리미트 에디션
3만4천원대 타이퍼피거.

체크 패턴이 그려진 캐시미어
니트 1백78만원 브리오니.

카무플라주 프린트 백. 35X19cm,
92만원 발렌티노 기린바니.

나폴리 소재의 체크 패턴 백. 43만원 프라다.

이탈리아의 프린팅이 돋보이는 패딩
머플러 65만원 맨디.

샤넬리스트의 유명한
에스키토 이생, 문서 에티 아저먼

for him Selection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 쇼핑할 계획이 있다면, 그 어느 시즌보다
다양하고 대담하게 전개되는 2018 F/W 패턴 플레이에
주목할 것!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체크 패턴 스리 버튼 재킷 3백60만원대 구찌.



보네펀를 상징하는
모노그램 패턴으로
양방향 도그
모티브를 50만원
루이비통.



체크 패턴의 컬러 플루잉 스나즈
29만8천원 타이퍼피거.



측면에 체크 패턴의 인트레치아토
디테일을 집속한 토트백. 38X34cm,
4만4천원, 베이 키 체인 55만2천원
모두 보테가 보테타.

- 루스타카 02-501-4436
- 브리오니 02-3274-6483
- 바버리 090-700-8800
- 발렌티노 기린바니 02-2015-4653
- 프라다 02-3218-5331
- 에르메스 02-542-6622
- 생 로랑 바이 인토니 바카렐로 02-6905-3924
- 타이퍼피거 1544-3966
- 보테가 보테타 02-3438-7682
- 루이비통 02-3432-1854
- 타이진 02-752-3572
- 칸바스 02-318-0490
- 몽블랑 1670-4810
- 구찌 1577-1921
- 맨디 02-2056-9023



Brooks Brothers

TWO HUNDRED YEARS of AMERICAN STYLE

롯데 잠실점 5F | 02.2143.7682 현대 판교점 6F | 031.5170.1634 신세계 센텀점 5F | 051.745.2855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B1F | 02.2052.6337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3F | 02.6288.0859

BROOKSBROTHERS.CO.KR



2018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기억과 치유의 도시 미학, 예술이 풍경을 바꾸다

도시를 가리켜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거대한 인공물'이라고 한다. 살아 있는 유기체에 곧잘 비유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빛 고을' 광주에서 그 변화의 중요한 한 축은 예술이 맡아왔다. 1995년 첫 행사를 치른 이래 20년이 훌쩍 넘도록 자리를 지켜온 현대미술 축제 '광주비엔날레'가 그 중심에 있다. 사실, 처음에는 우려도 많았다. '예향의 자부심을 살려 역사의 깊은 상처를 문화 예술로 승화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당시 광주는 작은 시립 미술관 하나가 고작일 만큼 현실적인 인프라가 열악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기반이나 지역 인구 규모에서도 글로벌 행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하는 시선이었다. 하지만 광주는 보란듯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비엔날레의 도시로 거듭났다. 예술을 품은 공간형 콘텐츠가 이 도시의 빛을 되찾아주고 있는 걸까?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 오는 11월 11일까지 66일간 계속되는 2018 광주비엔날레의 대장정을 이끄는 큰 주제다. 눈에 보이지 않게 굳건해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경계를 다각적인 시각으로 조망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민족주의 연구의 대가 베네딕트 앤더슨이 집필한 고전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에서 차용했다고 한다. 우리를 둘러싼 공동체, 국가, 조직 같은 것이 모두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경계가 아니겠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예술로 현실을 논하는 현대미술의 장에서 이런 테마가 나온 것은 좀 변하기는 하다.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미술 행사의 주제와 별 다를 것 없고(열 동네에서 열리고 있는 부산비엔날레의 주제 역시 결이 비슷한 '비록 떨어져 있어도'), 심지어 23년 전 개최된 광주비엔날레 1회의 주제도 '경계를 넘어'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수긍할 만한 주제이기도 하다. 오늘날 지구촌의 초점이 난민, 분단, 차별 등의 이슈에 쏠려 있지 않은가. 결국 핵심은 '콘텐츠', 그리고 콘텐츠를 구성하고 조화시키는 '레이팅' 능력일 터.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의 광주비엔날레는 너무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바람에 '산만하다'는 평이 많이 나온다. 한마디로 TMI(Too Much Information)다. 사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반응이었다.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1명의 '지휘자'가 집중적으로 이끄는 단일 감독제가 아니라 11명이 각자의 전시를 기획해 참여하는 다수 큐레이터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공동된 대주제 아래 11명의 큐레이터가 7개의 소주제전을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보이는 방식이다. 7개의 소주제는 '상상된 국가들', '경계라는 환영을 마주하며', '종말들', '귀환', '지진', '생존의 기술', '북한 미술'이다. 역대 최대 큐레이터가 참여했고, 43개국 1백65명 작가가 참여해 3백여 점의 작품을 내놓은 만큼 볼거리가 많다. 미리 꼼꼼하게 주제와 작가 목록을 살핀 뒤 관람하거나 아예 직관에 기대어 자유롭게 노닐 듯이 다니겠다는 마음이라면 뒤흔치는 발견을 할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경계의 압박

주 전시장인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서는 난민 문제를 다룬 작품이 눈에 띄었다. '경계라는 환영을 마주하며'라는 소주제로 기획한 큐레이터 그리티야 가위웡(Gridthiya Gawewong)의 선택이다. 지구촌 곳곳의 미술 행사를 다녔다면, 아니 뉴스만 자주 접하더라도 '또 난민이야?'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가볍지 않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이슈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룬 작가의 문제의식과 내용을 대하노라면 진지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에서 보듯 우리에게도 피부에 와 닿는 일이 아니던가. 2전시실에 설치된 프랑스계 알제리 작가 카테르 아타어의 영상물 '이동하는 경계들'은 특유의 오라로 시선을 압도하는 작품이다. 의자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의족이 충격적인 느낌마저 준다. 전근대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공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작가는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를 여행하며 죽은 자들과 대화하고 무덤이나 영매와 인터뷰도 한다. 호주 작가 톰 니콜슨이 1백10개의 작은 모형을 이용해 만든 디오라마 작품 '나는 인도네시아 출신입니다'도 눈길을 절로 사로잡는다. 온통 하얀색으로 칠해진 다양한 인간 군상은 인도네시아 통치 정책과 호주 이민 정책이 야기한 문제를 조명한 결과물이라고. 현실을 해롭게 비튼다는 방식 탓에 실소가 나오는 작품도 있다. 사람들이 이륙을 앞둔 비행기 위에 주르르 앉아 천천만한 웃음을 짓고 있는 합성 사진. 기자 자방에 올라타 통근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모습을 빚낸 것. 알고 보면 터키로 온 시리아 난민들이라는 사실에 씁쓸해진다. 터키 작가 할릴 알틴테레의 '피프티 항공'이다. 정보의 차단, 통제, 검열 등 포스트 인터넷 시대가 야기한 폐해를 다룬 크리스틴 Y. 김(Christine Y. Kim)과 리타 곤잘레스(Rita Gonzalez) 큐레이터의 선택도 흥미로웠다(4전시실). 가장 주목받은 작품 중 하나는 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중국인들의 정보 욕구를 재치 있게 담아낸 미야오인 작가의 '인터넷 플러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다. 직사각형 설치

사진 제공: 광주비엔날레

작품으로, 정면을 보면 아래에 2개의 모니터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 마오쩌둥의 이마 부분, 또 다른 하나는 판다를 보여준다. 또 성인 눈높이에는 크고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구멍 안 쪽을 바라보면 미국 자유여신상 등의 사진과 글이 보인다.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 통제 속에서 서로 그 통제망을 뚫고 바깥세상 소식을 접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광주시 동구에 자리 잡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는 문화 예술 명소다운 넓은 공간과 작품이 어우러져 전반적으로 시각적 전시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다.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든 대형 구조물로 인류의 소비와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타라 도노반의 작품 '무제와 신문지를 활용해 형성화한 비석'을 바닥에 펼침으로써 기억조차 할당되지 못한 수많은 역사의 희생자를 환기시키는 여상희의 '검은 대지', 개인적이면서도 사회, 정치적인 상처의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반영한 바이런 김의 '땀' 회화 시리즈 등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집단 창작 조선회와 문인회를 선보인다고 해서 개막 전부터 세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북한 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 섹션이 있다(문병강 큐레이터).

상실을 기억하고 아픔을 치유하다

쓰라린 고통을 겪어낸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하는 'GB 커미션' 작품은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 단연 주목받을 만하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당시 다친 시민들이 치료받기도 한 구 국군광주병원에는 역사의 흔적을 느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소 특정적 작품'이 놓이기에 적합한, 아니 그 사실성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숙연해지는 전시 공간이다. 지금은 '상실의 역사' 현상으로 보존되고 있는 이 장소들을 우리 조각 하나, 먼지 한 톨 손대지 않은 채 전시 무대로 활용했다. 영국 작가 마이크 벨슨은 구 국군광주병원 교회에서 거울의 울림(Mirror Reverb)이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으스스한 숲속에 자리한 낡고 아담한 붉은 벽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먼지가 가득하고 유리창도 깨져 있는데, 천장에는 수십 개의 낡은 사자 거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거울이 걸리면 서 서늘한 '울림'이 느껴지는 듯하다. 실제로 병원 건물에서 가져온 거울들이란다. 깨진 유리창과 담쟁이덩굴로 뒤덮인 병원 건물로 발걸음을 옮기면 서늘하다 못해 으스스한 느낌마저 드는 공간이 모습을 드러낸다. 비엔날레 주 전시관에서 영상 작품을 선보인 카테르 아타어의 또 다른 설치 작품 '영원한 지금(Eternal Now)'이 2층의 여러 방을 무대로 펼쳐져 있다. 폐허나 다름없는 썰렁한 방마다 폐곡이 서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한다. 잘 보면 어떤 나무 조각은 벌어진 틈을 스테이플러(적개)로 봉합해놓았다. 전시 관계자의 설명에 따라



1 2018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9월 7일 66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 전시된 호주 작가 톰 니콜슨의 '나는 인도네시아 출신입니다'(2017). 2 포르투갈 출신으로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작가 레오노어 안투니스의 작품 '호스팅'과 '패시비티',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니(2014). 3 상하 이와 뉴욕에서 활동하는 미야오인의 설치 - 영상 작품 '인터넷 플러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2017) 중국 인터넷 통제와 통치에 비판을 가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4 시리아 난민 이슈를 재치 있게 고안한 터키 작가 할릴 알틴테레의 '피프티 항공'(2016). 아무도 수용하지 않았다면 화상으로 보낸 아랍어, 라는 기정 사실 만든 항공시 포스터다. 5 광주비엔날레를 무대로 삼은 프랑스의 팔레 드 도쿄 전시 (Today Will Happen)에서 펼쳐진 피프티스. 6, 7 광주에서 알지 않은 담양군의 문화 예술 명소 '담양예술창고', 카페와 갤러리, 장원이 있는 '담양예술창고'에서는 광주비엔날레를 기념해 정영철, 김유섭 2인전 <경계와 다리: 블랙 페인팅>을 오는 11월 4일까지 연다. Photo by SY KO 8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전시 프로젝트인 GB 커미션 작품 중 세계적인 영화감독 이피키통 워라세타론과 프랑스 태생의 일러스트 작가 카테르 아타어의 작품을 전시하는 구 국군광주병원. 9 광주비엔날레의 위상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헬싱키 국제 아티스트 프로그램(HIAP)의 전시실. 10 GB 커미션 작품 중 하나인 마이크 벨슨의 거울의 울림(2018). 구 국군광주병원 교회 내부에 설치돼 있다. 11 담양 축죽원 안에 있는 이도심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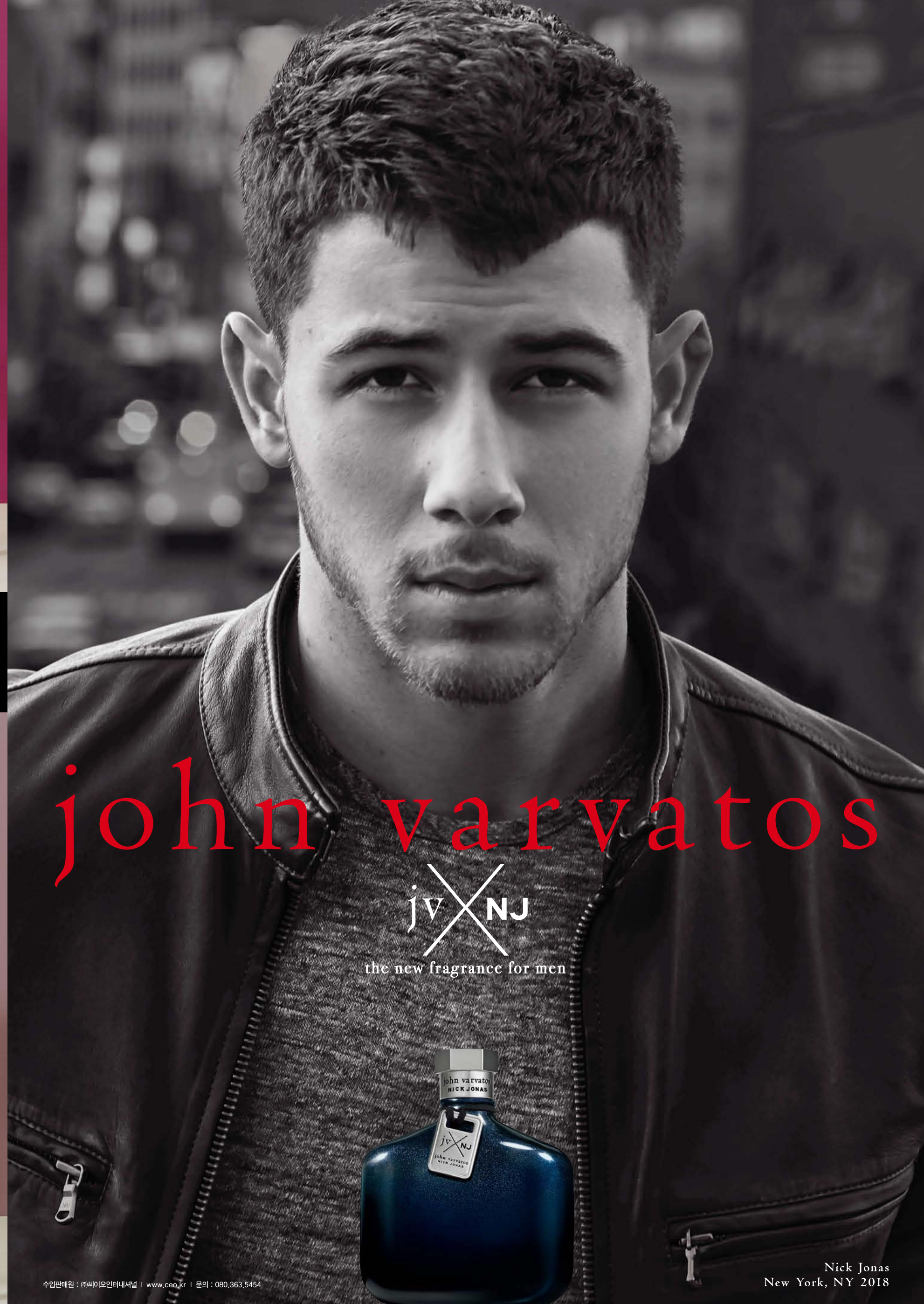
(왼쪽부터) 아이고너 바하르 백 부드러운 면서도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스킨백을 사용한 호보 백으로, 가죽과 메탈, 두 가지 스트랩으로 구성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해 데일리 백으로 활용도가 높을 듯. 29x32cm 90만원대. 문의 02-546-7764 토즈 비 토즈 백 소파 백과 트래블 백, 두 가지 구조가 하나로 결합된 스타일로 신보이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백. 바닥 면에 브랜드의 시그니처 디테일인 고미노 패들을 1자 모양으로 장식해 바닥 가죽을 보호해준다. 37x24cm 1백99만원. 문의 2-3438-6008 (왼쪽부터) 모아 by 보에, 칼렌셀 액션 CH88T by 덴스크.



Love new it bag

유려한 곡선과 차분한 색조, 아티스틱한 터치로
올가을 당신의 마음속에 새롭게 자리 잡을
2018 F/W 여성 뉴 백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생 로랑 비키 체인 백 짙은 올리브 색상의 페이퍼트 질티드 가죽 소재 백으로, 7방 중앙의 오버사이즈 YSL 로고가 포인트다. 화이트 캐주얼부터 베이직, 블랙까지 룩에 세련된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20x17cm 3백만원. 문의 02-549-5741 자랑스 포켓 백 7방 앞면에 자파와 장금장처 디테일의 두 가지 포켓 디자인의 미니 체인 백, 미니 백이지만 실용적인 수납공간이 돋보인다. 22x13cm 2백40만원대. 문의 02-310-1555 (왼쪽부터) 베르판 시리즈 430 by 보에, 임레스 디아닝 체어 by 리모드.



john varvatos

jv x nj

the new fragrance for men





팬디 더블 F 백 가방 앞개 양 모사리에 있는 F 장식이 포인트인 더블 F 백. 그레이스 송이자기족에 상세하고 투명한 비즈로 플라워 자수를 놓아 복고적인 감성을 자아낸다. 27X16cm 3백75만원, 문의 02-2056-9023
한스 웨그너 CH88T by 멘스크.



프라다 사티카프 백 가방 전면에 프라다의 아이코닉한 장식을 버너나 모티브와 함께 팝아트적으로 표현한 프린트가 돋보인다. 가죽 스트랩을 더해 토트백과 슬더백, 두 가지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다. 26X17cm 2백60만원대. 문의 02-3218-5331
알렉스 체어 by 리모드.



발렌티노 가리버니 블루미 백 이번 시즌 가장 아이코닉한 모티브인 팬지(pansy) 꽃에서 영감을 받아, 인레이와 스티칭 기법의 조화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블루밍 백. 나파 가죽과 스웨이드, 벨벳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해 마치 꽃이 활짝 핀 것과 같은 입체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30X21cm 4백60만원, 문의 02-2015-4653
그레이 페브릭 임체어 by 리모드.



살바토레 페라기오 클래식 플랩 백 클래식한 세이프에 브랜드의 상징인 반토끼 메달 소재의 간지오 잠금 장식을 매치했다. 길이를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는 가죽 스트랩으로 크로스와 슬더로 연출 가능하다. 23X18cm 2백90만원. 문의 02-3430-7854 에디터 이지연
브라운 임체어 by 리모드.

살바토레 페라기오 클래식 플랩 백 에디터 이지연 2024 02-3430-7854



Mercedes-Benz Man.

Grey, the new star eau de toilette.

INCC - Licensee of Daimler AG | 수입판매인 : ㈜에이엠엔터테인먼트 | www.cao.kr | 문의 : 080-383-5454



Mercedes-Benz



editor's Pick

가을을 담은 서정적인 컬러부터 소장하고 싶은 케이스까지, <스타일 조선일보>가 뽑은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보이 드 샤넬 르 탠티드 스킨 크림** 샤넬에서 남성용 위한 최초의 메이크업 라인, 보이 드 샤넬을 선보였다. 남성 메이크업을 위한 기질 기본차이면서도 핵심적인 아이텔로 구성한 것이 특징, 마치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 가벼운 포뮬러로 자연스러운 촉을 선사하고,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용액이 기능까지 충족시킨다. 화장하는 남성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를 태우고 싶지 않은 남성의 바람을 만족시켜줄 아이텔 3g 4만5천원, 문의 080-332-2700 *_by 에디터 이지연*

디올 루즈 디올 울트라 루즈 #999 우아하고 세련된 레드 컬러의 장식은 바로 이런 것! 디올인용 레드 립 컬러를 우아하게 해석하는 브랜드기도 있을까, 레드 립 미니 어면 꼭 소장해야 할 #999는 가수 신의 레드 립으로 화제가 되기도, 패키지가 저 매력적인 레드 컬러로 출시됐으니, 이보다 더 특별한 수 없다. 맨 얼굴에 이 립 스틱 하나만 발라도 화사하고 특별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 3.2g 4만3천원,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권유진*

슬로 비앙코 아무아이트 화장용 성분을 꼼꼼히 따져, 하루에 세 번 입속 건강을 책임지는 차가이(아) 성분과 효과를 극대화해 따져야 한다. 프랑스 화학자이자 조형사 프라데리 부르텔과 공동 개발한 이 제품은 유해 성분을 모두 배제하고 유가 능 인공을 받은 식물 성분을 사용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The Art of Mix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만큼 놀랄도록 상쾌하고 개운한 민트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100g 1만5천원, 문의 02-514-5167 *_by 에디터 권유진*

아모레퍼미픽 듀얼 나리싱 립 세럼 새로운 형태와 사용법을 원하는 립 마니아에게 추천하는 제품. 오일과 워터를 다한 제형으로 유수분을 모두 잡아주는 밸런싱 립 세럼이다. 한 손에 속 들어오는 유산형 패키지로, 입술 본연의 색을 더 파아나게 하는 정교한 텍스처는 역시 아모레퍼미픽다운 매력에 갖추었다. 14ml 4만원, 문의 080-023-5454 *_by 에디터 배기진*

제스텔 타치 하이리미터 윤곽 메이크업의 필수품 직교 입체적인 페이스 라인을 연출하기 위한 하이리미터로, 스타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대시 & 박태운의 노하우를 담은 제스텔 인클림 필의 입자, 질감, 발림성 모두 만족스럽다. 반짝임이 과하지 않아 은은한 윤광을 표현하고, 피부 본연의 광채처럼 자연스러운 라이팅 효과를 선사한다. 4.5g 2만9천원, 문의 070-4407-7933 *_by 에디터 권유진*

갈렌도보 보테 라디언트 코렉터 포 아이즈 눈가 전용 제품이지만 피부 전체에 사용해도 될 정도로 텍스처가 촉촉하고 뽕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하이리미터나 윤곽 메이크업용으로 사용해도 좋다. 건조함을 막아주는 알루미네움 킴플렉스 EX가 담겨 있어 갈라짐이 거의 없으며, 네 가지 컬러로 선택이나 피부 톤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2.2ml 6만5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배기진*

엘랑 아베이 로얄 더블 R 세럼 2개의 텍스처가 하나로 합쳐지는 듀얼 세럼. 비르 자미자 피부를 탄탄하고 끈끈하게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텍스처가 매력적이다. 블랙비 로얄과 워터 워터는 갈렌도보의 진귀한 성분들이 들어 있는 정도만을 만한다. 30ml 21만2천원, 문의 080-343-9500 *_by 에디터 배기진*

나스 벨벳 매트립 렌슬 드케인 걸 마치 크레파스로 컬러를 입혀듯 손쉽게 입술을 물들일 수 있는 렌슬 립스틱, 선명하고 비드한 샤넬 레드 색상으로, 출혈할 때마다 품질 사제를 일으키는 유명한 컬러다. 립본 하나 포인트 아이 메이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4g 3만7천원,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이지연*

랑콤 제.피피고 안티-다크서클 아이크림 제.피피고, 그 이름만으로도 신뢰가 간다. 기존 제품에 한 가지 주성분을 더 추가해, 총 세 가지 프로바이오티스 성분을 업그레이드해 출시한 이 제품은 눈가 피부를 더욱 매끄럽게 정돈해준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 일상에서 지친 눈가의 다크서클과 주름이 고민이라면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면 될 것. 15ml 9만7천원, 문의 080-001-9500 *_by 에디터 이지연*

아슬 아로마틱 풀 스프레이 울루스 아슬 특유의 상쾌하고 차분한 보테니컬 향을 선호한다. 이 향은 파도처럼 일렁이는 시드와 카다멈 스파이스가 어우러져 몇 번의 평판만으로도 특유의 아로마 향이 공간을 채운다. 집에 갈자마자 손님이 찾아왔을 때나 잠들기 전 숙면을 위해 세세 번 정도 공기 중에 분사하기 좋다. 100ml 6만4천원, 문의 070-5057-4215 *_by 에디터 이지연*

조르지오 아르마니 뉴 아르마니 톤업 쿠션 파운데이션 명기다운 뛰어난 커버력을 갖춘 데다, 여성을 위한 모든 시공으로 핑크색 케이스로 선보이는 쿠션 페드, 고농축 히알루론산 성분을 함유한 보습 에센스가 생기 있는 톤업 효과를 선사하는 것은 물론, 하루 종일 촉촉한 수분광 메이크업을 완성해준다. 소장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15g 9만9천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이지연*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아이 수퍼차지드 콤플렉스 흘러내리거나 자라는 느낌 없이 눈가 피부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겔 텍스처의 아이크림, 소량만 발라도 눈가 전체가 촉촉해지고 화장기 눈가 피부의 건조함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준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해 눈가 안티에이징 케어 제품으로 추천한다. 15ml 9만7천원, 문의 02-3440-2772 *_by 에디터 배기진*

네티프 그린 렌슬 워터 중요한 햇살을 가득 머금은 무화과의 향을 담은 특별한 향조. 가을바람과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포근하고 개성 있는 향으로,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무화과나무 숲에 들어온 듯 상상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고농축 파프리카를 함유해 삼차향 태우지 않아도 발향 효과가 뛰어나다. 300g 13만원, 문의 02-6002-3230 *_by 에디터 권유진*



레츠 워크 우먼 번지 CH3359

THERE'S WALKING.
THEN THERE'S LET'S WALK.

rockportkorea.com 고객센터 080.344.3232 컨셉스토어 02.6137.5100

Deep impression

기품과 아름다움을 갖춘 현대적인 예술품으로 불릴 만큼
정교한 장인의 손길, 아름다움의 가치를 담은 하이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LES BLES DE CHANEL

부활, 풍요, 행복, 번영, 그리고 무한한 창의성의 영원한 상징인
밀을 테마로 한 최초의 컬렉션인 레 블레 드 샹넬. 부드러운 라인
과 자태가 신비로움에 흔들리는 밀밭을 연상시킵니다. (왼쪽 윗부분)
조용히 익어가는 보드라운 어린 밀에서 영감을 얻은 프리에르
브랭 네크리스. 1.5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1.37캐
럿의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 15.99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를 사용했다. 마치 어린 밀의 줄기를 손목에 감은 듯 생생한 브랜
드와 브릴리언트. 18캐럿에 달하는 82개 핑키 컷 다이아몬드와
6.2캐럿 상당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
를 사용했다. 수확할 무렵의 밀을 모티브로 완성한 루아송 앙슬레
이어 브로치. 황금 및 태양 아래 빛나는 밀을 표현하기 위해 10.2
캐럿 옐로 사파이어, 마카즈 컷 옐로 사파이어, 핑키 컷 다이아
몬드를 사용했다. 모두 카르티에 하이 주얼리. 문의 080-200-2700



CACTUS DE CARTIER

(오른쪽 윗부분) 산악의 자유분방함과 독특한 아름다움을 원색으로
표현한 카투스 드 카르티에 네크리스와 링. 산악정 열매 바바
리안 피크에서 영감을 받아 아프리카인 무드까지 느껴진다. 크리스
프레이즈, 라피스 라зу리 같은 독특한 원석을 사용했다. (오른쪽
아래부분) 옐로 골드의 볼륨감을 이용해 산악의 과감한 실루엣
을 표현한 카투스 드 카르티에 브레이슬릿과 이어링. 밤에만 꽃
을 피우는 산악에서 영감을 얻어 통념을 깨 화사한 하이 주얼
리를 완성했다. 기하학적인 형태감과 독보적인 비례는 오직 카르
티에의 주얼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

PANTHÈRE DE CARTIER

(오른쪽 가운데) 1914년에 탄생해 브랜드의 역사를 이어온 주제가
된 팬더 드 카르티에 브레이슬릿과 네크리스. 카르티에를 대표하
는 팬더Panthère, 프랑스어로 표범의 카리스마를 담은 하이 주
얼리 컬렉션이다. 다양한 팬더의 얼굴 표정을 살펴보는 것도 이 컬
렉션만이 가진 매력이다. 표범 무늬를 블랙 레카르 차민해 더욱 강
렬하다. 모두 카르티에. 문의 1566-7277 에디터 배미진

THE SPIRIT OF FALL

찬 바람과 함께 찾아온 아우터웨어의 계절.
가을의 무게를 흔쾌히 느껴라.
기분 좋은 터치와 시선이 함께하는 LA 스토리.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레드 컬러 레이스 코트 699,000원,
블라우스 1백73만원, 팬츠 가격미정
모두 발렌타노, 블랙 핑크스
가격 미정 발렌타노 가리바니.



프린지 민트 코트 599,000원,
가하학 패턴 드레스 2백95만원
모두 에트노, 골드 체인 이어링
21만8천원 포트레이트 리프트,
블랙 앵글 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체크 재킷, 그린 잠업 니트 롱,
레더 팬츠, 옐로 벨벳 로퍼 모두 가격 미정
구찌, 골드 아이카프 17만5천원,
아이링 29만8천원 모두 포트라이트 리포트.



레오퍼드 니트, 피코트 모두 가격
미정 **막스마라**, 그린 잠업 니트 롱
가격 미정 **안크**, 카키 컬러 스타킹
스타일리스트 소정음.

레드 컬러와 스티치가 돋보이는
스트레이트 울 소재 재킷 2백92만5천원,
채인 장식 팬츠 1백35만원,
브로치 가격 미정, 주얼 10만원
가격 미정 모두 보태가 매네다.



플러시 컬러 드레스, 브린 레터,
롱리프 코트 가격 미정 신비로이
비라미도, 진주 장식 이어링
스튜디오 시트 시스틀





브라운 패턴 드레스 가격 미정
 에르메스, 베이지 컬러
 에-엘 슈즈 가격 미정 앙드레
 잔주 드롬 이어링 가격 미정 알라인,
 버건디 스타킹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체코 블루중, 스트라이프 셔츠,
 멀티컬러 스트라이프 팬츠,
 로프 장식 그린 힐 모두 가격 미정
 버버리, 골드 이어링 17만8천원
 포트레이트 리포트.

- 발렌티노 02-2015-4653
- 발렌티노 가문바니 02-6905-3610
- 버버리 080-700-8800
- 포트레이트 리포트 02-6338-9007
- 에트로 02-772-3473
- 에르메스 02-542-6622
- 잉크 070-8733-2237
- 알라인 02-3447-0510
- 살바토레 페라기오 02-3430-7854
- 만스미라 02-3467-8326
- 보테가 베네통 02-3438-7601
- 구찌 1577-1921

메이든 & 헤이 Jenny O
 모델 Mackenzie McDonald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2018 Blue Book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럭셔리 하우스 티파니의 1백81년 역사와 창조 정신, 장인 정신, 그리고 혁신을 담은 2018년 블루북 컬렉션 (티파니의 사계)를 <스타일 조선포보>가 지난 7월, 홍콩에서 직접 확인했다.

홍콩의 뜨거운 태양 아래 빛나는 티파니의 아름다운 보석들. 티파니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지만, 하이 주얼리를 대하는 모습에서 마치 항상 처음인 듯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티파니의 기본 가치인 품질, 장인 정신, 아름다움과 독창성에 설립자인 찰스 루이스 티파니 (1812~1902)의 철학을 담아 매년 새롭게 선보이는 블루북 컬렉션은 앞으로 티파니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올해는 이 아름다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최고예술경영자인 리드 크라코프의 시선과 조우해 계절과 컬렉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색상 이론을 주제로 구성된 이번 블루북 컬렉션은 동식물과 자연에서 느껴지는 구조적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다. 비범한 테크닉과 탁월한 젬스톤으로 구현한 현대적이고 그래픽적인 형태의 티파니 블루북 컬렉션은 예상치 못한 발견에 대해 이야기한다. 각각의 주얼리 파스는 선구적인 디자인과 티파니 장인의 유서 깊은 재능을 결합해 완성한, 잊힌 꿈을 일깨우고 기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창작물이다. 그중 리드 크라코프가 꿈은 가장 소중하고 싶은 작품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열을 모티브로 한 네크리스'. "갈라진 듯한 열을 형상화한 네크리스는 이전에는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의 접근으로 다이아몬드를 케칭하는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공정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국가 기간 과정과 여정 속에서 티파니의 숙련된 장인들이 진정한 혁신을 담으면서도 모던하고 혁신적인 느낌을 지닌 작품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티파니의 수석 보석학자 멜린 커틀리(Melvin Kirtley)는 이번 블루북 컬렉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라데이션 기법이 라고 말한다. "이번 컬렉션에 사용된 모든 젬스톤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단순히 컬러의 차이에서 오는 그라데이션뿐 아니라 다양한 젬스톤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톤을 얻어냈는데 매우 주목해야 한다. 즉, 탄자이트와 사파이어를 섞어 색상의 그라데이션을 구현해내고, 조이사이트와 탄자이트, 사파이어를 결합해 색의 그라데이션을 연출해 주기도 했고, 서로 다른 색과 종(種)을 사용해 다양한 톤을 구현해낸 것은 보석학자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전통과 최고 수준의 공예술에 기반을 둔 현대적 최고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인 티파니 블루북 컬렉션. 풍부한 색감과 기하학적인 구조, 완성도 높은 디테일까지 갖춘 하이 주얼리의 예술성은 자연이라는 모티브를 만나 매년 새롭게 태어난다. 1837년 이래 독보적인 장인 정신으로 주얼리의 세계를 이끌어온 티파니의 열정적 주얼리의 눈부신 미래를 이끌 전설적인 스타일을 다시 한번 탄생시킬 것을 기대하게 한다.

에디터 배미진(홍콩 현지 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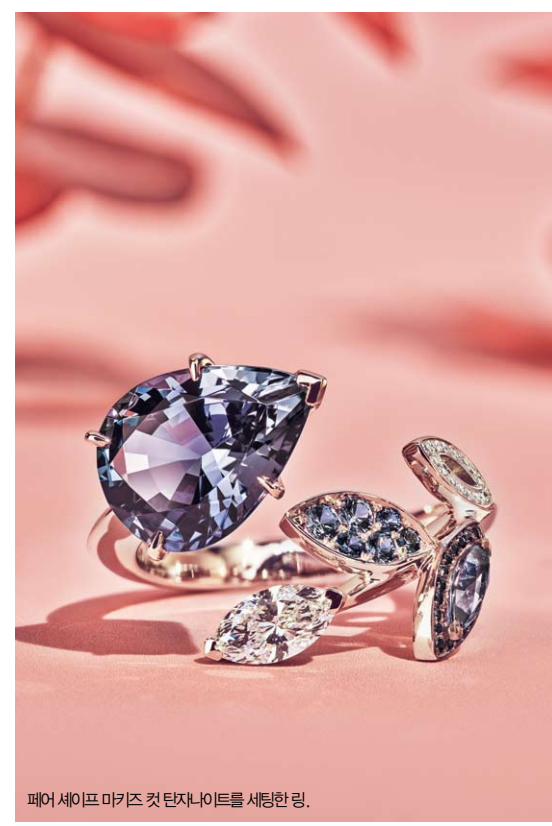
- 1 40캐럿 이상의 바게트 컷 이라미란과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펜던트.
- 2 27캐럿 이상의 에메랄드 컷 탄자이트와 5캐럿 이상의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브로치.
- 3 14캐럿 이상의 라운드 핑크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브레이슬릿.
- 4 63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 레이 팬시 블루 그레이, 그리고 그레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
- 5 7캐럿 이상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레이 팬시 그레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어링.
- 6 남해 진주를 센터 스톤으로 세팅한 링.
- 7 92캐럿 이상의 독특한 이리스 카펫 기법이 적용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
- 8 43캐럿 이상의 라운드와 오벌 컷 탄자이트, 33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 그리고 18캐럿 이상의 라운드 사파이어를 세팅한 펜던트.
- 9 18K 옐로 골드와 플라타늄에 8캐럿 이상의 라운드 핑크 및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브로치.
- 10 18K 옐로 다이아몬드와 플라타늄에 8캐럿 이상의 믹스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브레이슬릿.



다양한 컷의 68캐럿 이라미란을 세팅한 브레이슬릿.



명굴을 모티브로 한 클래식한 드롭형 네크리스에는 32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페이퍼 플라워 마크스 컷 탄자이트를 세팅한 링.



수국 모티브에 믹스드 컷 사파이어로 블루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네크리스.



오렌지 컷 사파이어 센터 스톤 주위로 핑크 사파이어를 세팅한 브로치.



Tiffany Paper Flowers Collection

완전히 새롭게 선보이는 파인 주얼리 컬렉션을 최초로 본다는 것은 경이로 여기기 힘든 일이다. 이번 홍콩에서 개최된 블루북 컬렉션 쇼에서는 진귀한 하이 주얼리를 사이아 아름다운 정원이 연출되었다. 올해 티파니가 아심 차게 선보이는 페이퍼 컬렉션을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는 지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티파니 최고예술경영자 리드 크라코프가 선보이는 첫 번째 주얼리 컬렉션인 티파니 페이퍼 플라워(Tiffany Paper Flowers)가 놓인 공간 자체도 특별했다. 은빛으로 빛나는 실내 정원 형태의 '그린 하우스' 구조물 안에 마치 살아 있는 식물처럼 주얼리를 세팅해 모두의 눈을 사로잡았다. 티파니에서 오래도록 경애해 마지않는 정제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킨 페이퍼 플라워 컬렉션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역시 티파니에게 가능하다. 리드 크라코프의 놀라운 아이디어는 종이로 만든 꽃에서 시작되었다. 만개한 꽃이 바람에 흩날리다 플라타늄 핀에 의해 고정된 형태를 모티브로 상상 속 창조물을 현실로 구현한 것. 크라코프는 '페이퍼 플라워'는 현존하는 파인 주얼리의 법칙에서 자유롭습니다. 럭셔리와 격식이 반드시 공존할 필요는 없으며, 최상의 원석과 메탈을 소재로 한 주얼리 파스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여삼이 보여주는 컬렉션이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중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티파니의 상징과도 같은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반딧불이 네크리스. 자연주의를 주제로 다양한 꽃의 아름다움과 자연 속을 노니는 생물들이 등장한다. 이 모든 것을 구성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희소 가치가 높은 다이아몬드와 컬러 젬스톤이다. 천연

의 파란색과 보라색의 탄자 나이트가 완벽하게 폴리싱한 플라타늄에 자리 잡아 새로운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도회적인 삶이 자연의 세계와 교차하는 도시적 여성미를 담은 이 컬렉션은 행운(luck)의 의미를 지닌 4개의 꽃잎과 달리 페이퍼 플라워에 담긴 3개의 잎은 행복(happiness)이라는 스토리를 담아 티파니 스토리텔링의 힘을 느낄 수 있다.

- 1 리드 크라코프가 고안한 페이퍼 플라워 컬렉션을 위한 그린 하우스.
- 2 마치 가드닝듯 디스플레이한 주얼리.
- 3 티파니 페이퍼 플라워 다이아몬드 클러스터 네크리스.
- 4, 5 티파니 페이퍼 플라워 옐로 다이아몬드 파이퍼플라이 링과 펜던트.





시도와 컬러, 창의성이 어우러진 디자인을 선보이며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신디 크로퍼드가 오메가의 홍보대사에 합류한 1995년은 오메가가 성공한 여성의 이미지를 대변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2005년에는 니콜 키드먼이 오메가의 중요한 일원으로 합류했다. 이후 영화계, 스포츠계, 모델계의 많은 유명인들이 오메가 패밀리로 이름을 올렸고, 최근에는 모델 카이아 거버, 골프 선수 미셸 위, 배우 류시시 등이 함께하고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오메가는 변화하는 여성의 에티튜드와 취향에 늘 발맞춰왔다. 20세기가 지나고 여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온 만큼, 오메가도 여성 세계 제작 산업의 최전선에 뛰어들어 입지를 다졌다. 오메가의 테크놀로지는 최고 수준에 도달한 시계 내부 설계의 기준에 맞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어떤 경우에는 남성 시계 제작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수준의 장인 기술이 요구되기도 한다. 여성용이라는 틀에 갇혀 수식어를 더욱 불필요하게 만드는 최첨단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력이 바탕이 된 아름다운 디자인. 오메가는 앞으로도 타임피스의 역사와 미래를 여성들과 함께할 것이다. 늘 그랬었던 것처럼.

"남다른 열정과 비전, 오메가는 곧 미래입니다. 미래와 이해, 그리고 늘 스스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오메가는 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날드 애슐리만(Raymond Aeschlimann, OMEGA President & CEO)



her time, Her Choice

"그녀의 시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밀라노, 파리, 뉴욕을 비롯한 특별한 도시에서 연이어 열려 보는 이들을 사로잡은 <Her Time> 전시. 최근엔 신비로움을 간직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려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함께할 수 있었다. 여성, 시계, 그리고 오메가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

‘그녀가 선택한,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

한 세기 이상 이어져온 혁신과 디자인의 브랜드, 오메가. 종종 탁월하고 엄격한 기술력으로 기억되는 오메가는 이제 여성과 그녀들의 타임피스를 통해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 단순한 시계의 과학적 성능이나 디자인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의 스타일과 히스토리, 에티튜드 등을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처럼 여성들을 위한 노력은 오메가가 지금까지 명성을 유지해온 원동력이기도 하다. 2015년 밀라노에서 시작된 순회 전시(Her Time)는 오메가 여성 시계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진화와 스타일을 한눈에 보여주며 오메가를 재발견하게 해준다. 화려하고 역사적인 공간에 전시된 오메가의 클래식한 여성용 빈티지 타임피스들은 눈부실 만큼 아름답고, 탄성을 자아낼 만큼 존재감을 한껏 드러낸다. 마치 신비롭고 펜션한 세계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다. 이번 전시에는 오메가의 최신 제품도 전시되었는데, 드 빌 트레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전설적인 레이디매틱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더욱 모던하고 과감해진 디자인은 여성이라는 존재와 위상이 놀라게 성장해왔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오프닝 이후 이어지는, 글로벌 셀러브리티, VIP와 세계 각지에서 온 저널리스트가 참석한 갈라 디너는 오메가의 위상을 새삼 깨달을 만큼 웅장하고 화려하다. 오메가가 여성과 시계에 대한 오메가의 존중심을 표하며, 서로 영감을 주

는 특별한 시간이다.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20세기, 워치메이킹 분야에서도 여성용 타임피스에 관한 커다란 혁신이 시작되었다. 오메가 여성 시계의 우아한 재래가 세상의 이목을 이끈 것은 1902년이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여성이 자신의 시계를 보는 일은 지루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무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오메가는 주얼리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작은 시계를 숨기고 있는 '시크릿' 주얼리 위치를 만들었고, 이 주얼리 위치는 점점 많은 여성의 사랑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메가는 그 스타일을 확립해나갔다. 신여성들은 미니스커트와 보브 컷 헤어에 열광했고, 아르데코 운동이 일어 볼드한 디자인이 각광받았다. 오메가도 이런 자유와 표현에 발맞춰 아르데코 주얼리 위치 컬렉션을 제작했다. 물론 오메가의 명성에 걸맞은 정교한 제품이었다. 1894년부터 1935년까지 오메가가 출시한 고급 무브먼트 제품 중 35%가량이 여성 시계용이었다는 것이 그 시장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상징한다. 오메가의 이러한 노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1937년에 출시된 메디쿠스(Medicus)다. 사용하기 쉽고 편하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제품은 간호사를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오메가의 제품 중 중앙 초침을 장착한 첫 번째 시계였다. 1950년대는 오메가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객으로서의 여성에 헌신한 시기였다. 1955년에 출시된 레이디매틱(Ladymatic)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로노미터 인증 로터리를 장착한 오토매틱 칼리버로 구동하는 제품이다. 오메가 '플러워' 주얼리 시크릿 위치는 모브 골드 제품 제작한 최초의 시계로, 1955년 출시된 오리지널 피스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 실력적인

OMEGA History

<p>1906</p> <p>오메가 여성용 손목시계 18K 레드 골드 레인 펜던트 위치를 상향 변형해 만든(2시 표시가 3시 위치에 있음) 이 시계는 오메가가 최초로 만든 손목 시계 중 하나로, 아이브리 클러스 다이얼과 찬란한 광택을 선사하는 골드 미닛 트랙, 그리고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신경 쓴 루이 15세 핸즈를 장착했다.</p>	<p>1910</p> <p>오메가 레인 펜던트 이브리누보 눈부시게 빛나는 여성용 레인 펜던트에는 파리 스타일의 이브리바 스타일 브로치로 핸즈가 장착되어 있다. 투명한 블루 에.엔.과 고급스러운 화이트 골드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케이스 백에는 1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눈부시게 빛난다.</p>	<p>1940</p> <p>오메가 아르 데코 주얼리 손목시계 이 매력적인 제품은 당시 패션계를 휩쓸었던 아르데코 스타일을 훌륭하게 재현했다. 1940년대에 인기를 누리던 직사각형의 클래식 디자인, 클러스터 케이스와 눈부신 다이아몬드, 그리고 시야가 개방된 구조를 이룬다.</p>	<p>1946</p> <p>오메가 주얼리 손목시계 화사함을 인정받고 있는 18K 레드 골드로 제작된 잔란한 모델이자 같이 조침이 가능한 '투모스' 브레이슬릿을 도입한 최초의 시계로, 이후 출시된 다른 브랜드의 제품도 이러한 영향을 미쳤다. 또 유명한 아티스트 르네 그루오가 제작한 광고는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p>	<p>1955</p> <p>오메가 레이디매틱 매혹적인 디자인과 놀라운 혁신 기술의 조화를 선보인 레이디매틱은 출시 직후부터 큰 성공을 거둔 타임피스다. 이 모델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로터리를 장착한 오토매틱 칼리버로 구동하며, 여성용 시계 분야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우아한 품격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p>	<p>1956</p> <p>오메가 토피즈 주얼리 시크릿 위치 재바의 장우크가 워치 & 주얼리(Montres et Bijoux) 칼리버 및 진시계를 위해 제작한 시크릿 위치에는 21개의 삼각 바게트 컷 옐로우 토피즈가 부착되었을 이르고 있으며 카바와 루프 위에 3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다.</p>	<p>1964</p> <p>오메가 플라다바타 진짜 오메가가 뉴욕 미국 박물관을 위해 제작한 모델로, 우주 차원에서 온 것 같은 잔란한 주얼리 몸짓의 플라다바타와 초소형 오토매틱 무브먼트, 18K 옐로 골드, 그리고 플라다바타를 결합해 완성한 작품이다.</p>	<p>1972</p> <p>오메가 드 빌 주드르 (Jeux d'Or) 칼리버에서도 상향하고 있으며 18K 옐로 골드로 제작된 손목시계. 특별한 워치 패인의 골드 브레이슬릿과 직사각형 케이스, 에펠드 형상을 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다이얼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p>	<p>1992</p> <p>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스타 출시되는 골드 도트가 인상적인 18K 골드 다이얼. 고객들은 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케이스 백에 이름을 새겨 넣어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모델로 만들 수도 있다.</p>	<p>2010</p> <p>오메가 레이디매틱 브랜드의 아이콘인 클래식한 레이디매틱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디자인과 획기적인 기술을 결합했다. 코.엔.엔. 무브먼트와 대담한 스타일의 다이얼, 배젤, 인티스가 눈을 땔 수 없는 신비로운 감성을 연출한다.</p>	<p>2018</p> <p>오메가 트레저 트레저는 모던한 감각이 반영된 클래식 디자인을 재현한다. 각 모델은 곡선 디자인의 다이얼로 장식된 원형 케이스와 다이얼을 둘러싼 우아한 로마노자카 인스카피, 페르릭 스트렐을 장식해 모던한 감성을 뽐낸다.</p>
--	---	---	---	--	---	--	--	---	--	--



1 지난 7월 중순, 프랑스 샴페인 브랜드 크루그(Krug)와 미식, 음악이 삼박자를 이루는 크루그 인카운터스(Krug Encounters)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2 크루그는 타이핑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뮤직 페어링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엄격하게 선별한 음악이나 관객까지 매년 다양한 크루그 샴페인에 어울리는 음악을 담은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한다. 크루그 홈페이지(krug.com) 혹은 앱으로 받아볼 수 있다. 3 올해 크루그 인카운터스 서울 행사에서는 배우 유태오, 피카 뮤직 큐레이터로 활약했다. 세 명의 장소에서 샴페인과 음식에 맞춰 밥, 제즈, 가요, 클래식 등 각기 다른 맥락을 담은 선곡 리스트를 내놓았다. 4 프렌치 레스토랑 라미피에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친 탱고 트리오 이보스(y vos). 5, 7 크루그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하나의 사제들을 선정해 각국의 저명한 셰프들과 협업했는데, 올해 한국에서는 장명식(라미피에, 김정희(장성민), 권우중(권수), 한석원(스시), 그리고 인기 레스토랑 댕이(이부) 등 5인을 선정해 한자 페어링 메뉴를 판매 중이다. 6 크루그 창립자의 6대손인 올리비에 크루그(Oliver Krug)와 배우 유태오.



interview with...
Oliver Krug(크루그 하우스 디렉터)



크루그 가문의 6대 계승자 올리비에 크루그(Oliver Krug). 공식 직책은 하우스 디렉터(House Director)지만, 크루그 얘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며 열변을 토하는 진정한 브랜드 홍보대사다. 사실 태어나자마자 일출 위를 몇 발음의 샴페인으로 적시는 흔치 않은 세리모니를 경험하고 포도밭에 둘러싸여 지란 지란 크루그의 장수를 일타기에 적격인 인물도 별로 없을 듯하다. 자녀를 크루그와 미식, 음악이 어우러지는 조화의 모임을 일타 크루그 외의 조우 행사에 참석하러 서울을 찾은 올리비에 크루그를 만났다. 마침 자신의 조국 프랑스가 20년 만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다시 들어 올려 유난히 기분이 좋았던 그와의 일문일담.

'18 크루그 인카운터스 서울 the art of Resonance

많은 이들이 와인을 말할 때 과학을 언급하고, 예술을 논하고, 철학을 깐지아댄다. 물론 그런 지식은 도움이 된다. 즐거운 대화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종종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사실이다. 온갖 지식을 섭렵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걸 놓치면 무슨 소용일까? 그럴듯한 포장의 가문이 점점 두꺼워지면 정작 그 속에 담긴 아름답고 풍부한 것들을 포착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원래는 충분히 친근하고 다정다감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아마도 그래서 도도한 스펙을 내세우기보다는 '다 내려놓고 마음 편히 음미하라는 메시지를 유난히 강조하는, 그리고 창의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한 샴페인 브랜드가 눈에 더 들어오는지도 모르겠다. 애정의 밀도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렬한 전 세계 팬들을 다수 거느리고 있는 샴페인 명가 크루그(Krug)의 얘기다.

최종 선택된 10여 가지 빈티지에서 나온 1백20여 가지 베이스 와인을 블렌딩한 다음에 적어도 6년 이상 숙성시키는 샴페인(그래서 크루그 그랑 퀴베는 '빈티지가 아니라 에디션(edition)'이라는 표현을 쓴다). 조셉 크루그는 이를 '넘버 1(n1)'이라고 불렀다(물론 크루그에도 한 해의 특징적인 캐릭터를 담아내는 빈티지 샴페인이 있는데, 이는 '넘버2(n2)'라 명명했다). 그는 이 같은 원칙과 비전을 김밥은 체리 및 가장 손수 적어놓았다.

음악, 미식, 그리고 크루그 삼위일체의 모미
비범한 탄생 스토리만큼이나 남다른 품질을 자랑하는 크루그는 오랜 세월을 걸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중에는 20세기 오페라계의 진정한 디바로 통하는 불세출의 소프라노 가수 마리아 칼라스(Maria Callas)도 있었다. 마리아 칼라스는 그리스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와의 연애로도 세간에 화제를 뿌렸는데, 이 둘이 요트를 타고 여행할 때면 늘 크루그 그랑 퀴베가 함께했다고 전해진다. 연인인 마리아가 워낙 크루그를 좋아하니 오나시스가 대량으

로 사들여 구비해놓았다는 것. '오페라의 성녀라 불렀던 마리아 칼라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샴페인이어서일까? 지금도 크루그는 음악과 페어링 할 수 없는 궁합을 보여준다. 많은 음악인들이 사랑하는 샴페인이기도 하고, 음악과 잘 어울리는 샴페인으로 통한다. 음악이아말로 '순수한 음용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크루그의 DNA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을 꿰뚫어 본 크루그 경영진은 묘수를 생각해냈다. 바로 크루그와 뮤지션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뮤직 페어링(music pairing)' 프로젝트다. 2012년부터 '소리를 활용한 체험을 모색하다가 2013년 홍콩 행사에서 유명 음악인을 초청해 당시 서빙했던 샴페인과 '매칭할 만한 음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4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음악을 크루그 팬들과 소통하고 샴페인을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도모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삼은 것이다. 실제로 '창각이 미각에 미치는 영향'은 옥스퍼드대 연구진을 위시해 학계에서도 관심을 쏟고 있는 주제다.

좋은 샴페인과 좋은 음악. 여기에 좋은 음식까지 곁들이면 '몰입의 즐거움'에 있어 금상첨화임은 당연한 진리일 것이다. 더구나 크루그 가문은 1970년대 5대손인 앙리 크루그와 레미 크루그 시절에 '샴페인 디너라는 장르를 나름 개척했다고 자부하는 이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삼위일체의 모미를 만끽할 수 있는 크루그의 푸드 페어링(food pairing) 프로젝트는 이렇듯 자연스러운 배경과 논리에서 선을 보였다. 특히 크루그의 푸드 페어링은 단순히 술과 음식을 조화시키는 샴페인 디너가 아니라 크루그 그랑 퀴베와 잘 어울리는 한 가지 식재료를 주제로 전 세계에서 크루그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유명 셰프들과 협업한다. 첫해인 2015년 재료는 감자, 2016년에는 달걀, 2017년에는 버섯, 그리고 올해는 생선이다.

삼중주의 미학이 펼쳐진 크루그외의 조우 행사
올해의 재료인 생선과 크루그, 그리고 이 둘의 조화를 복돋는 음악. 크루그에서는 이 셋의 절묘한 앙상블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크루그외의 조우(Krug Encounters)'라는 행사를 마련했다. 그리하여 지난 여름 어느 날 밤, 서울에서는 하이엔드 오디오의 미학을 접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오드 포트, 프렌치 레스토랑 라미피에, 레스토랑 댕이(이부), 이렇게 세 곳에 걸쳐 아주 흥미로운 행사가 열렸다. 자리를 이동하면서 저마다 다른 공간에서 귀와 눈, 혀를 각각 만족시키는 삼중주의 미학이 펼쳐진 것이다. 서울의 크루그외의 조우를 맡은 뮤직 큐레이터는 한국계 독일인 배우 유태오(Teo Yoo). 20세기 중후반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한국계 록 가수 빅토르 최의 삶을 다룬 영화 <레토(Leto)>에 출연한 그는 음악과 미식에 대한 내공이 상당함을 자신만의 선곡 리스트로 보여줬다. 먼저 오드 포트에서 하이엔드 오디오 사운드를 바탕으로 흘러나온 음악 중에는 최백호의 '방랑자'가 있었다. 애잔하면서도 흥겨운 멜로디 속에 '페어링된' 이날의 주인공은 '크루그 그랑 퀴베 166 에디션. 브랜드 탄생 1백74주년을 맞아 선보인 이 에디션은 가장 최근 연도로는 2010년, 오래된 연도로는 1996년에 생산된 와인 등 10가지 다른 빈티지 와인 1백40종을 블렌딩한 샴페인으로 풍부하면서도 우아한 맛을 품고 있었다. 라미피에로 자리를 옮겨 장명식 셰프의 감각이 돋보이는 아무즈 부셰를 벗 삼아 '크루그 그랑 퀴베 160 에디션'을 들이켰다. 이때 퍼지는 음악은 국내 탱고 트리오인 이보스(y vos)의 '감성적인 라이브 연주. 마지막 목격자인 레스토랑 댕이(이부)에서는 '크루그 그랑 퀴베 166 에디션과 더불어 이 브랜드에서 19번째로 재창조된 로제 샴페인으로 매끄러운 텍스처와 강렬한 풍부함을 뽐내는 '크루그 로제 19 에디션으로 이어지는 페어링 만찬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볍게 익힌 한치 요리, 금메 부야베스, 페이스트리에 채운 푸아그라 부당 블랑과 오리 요리 등과 이루는 흥미로운 미각의 조화를 '음미하는 가운데 제즈, 팝, 러시아 음악, 가요 등 다채로운 장르와 국적의 곡들이 한여름밤의 분위기를 한층 더 낭만적으로 이끌었다. 그야말로 오감의 향연!

이렇듯 그저 순수하게 감각이 이끄는 대로 집중하면 되는 자유로운 즐거움이아말로 바로 크루그가 샴페인을 바라보고 소통시키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은 삶을 대해야 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일까, 이 매력적인 샴페인 브랜드의 철학은 우리가 익히 아는, 공자가 남긴 주옥같은 경구(警句)를 떠올리게 한다. '어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크루그**

경연과 경제 분야를 공부하고 바로 크루그에 합류했다. 집인의 장남(다섯 형제(제) 중)으로 유일하게 기업에 참여했다. 원래부터 샴페인 사업에 뛰어들 생각이었는지? 집안에는 시종들도 있었고, 나이도 중요한 건 아니었다. 졸업하고 막 커리어 세상에 발을 들여 놓으려는 차에 아버지의 재안을 받았다. 첫 임무는 일본 시장 개척이었다. 당시 샴페인 시장이 열악했고, 크루그라는 브랜드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터라 홍보하기 위해 고생도 많이 했다. 어느 날 교토의 유명한 레스토랑 소믈리에가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에 갔더니 훌륭한 소믈리에들이 크루그의 브랜드 스토리는 '짜짜라'했다고, 그리고 12병을 주문했는데, 내가 우선 8병만 보냈다고 했다. 나는 그가 조만간 다시 주문하러만 걸었었고, 실제로 그랬다. 그렇게 브랜드를 구축해온 지 25년이 훌쩍 넘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왔을 텐데, 크루그 가문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뛰어난 디테일에 대한 감각과 쉽게 풀짐에 만족하지 않는 태도, 작업에 대한 단단한 기판, 정인 정신 등을 항상 강조하셨다. 사실 우리는 조셉 크루그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크루그 고유의 가치 하나 숨겨져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그가 크루그를 시작했던 이유를 알게 되면서 발견한 것인데, 그건 바로 관대함(generosity)이다.

(특이하게도) 크루그는 브랜드 고유의 가치로 관대함이라는 단어를 자주 강조하는 것 같다. 그는 해마다 좋은 재료로 최고의 샴페인을 만들어 최상의 즐거움을 주어야 하는 꿈을 지닌 관대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크루그의 정신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다. 사람에게 게 할가 더(more) 주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가문에 중요한 가치다. 뮤직 페어링도, 푸드 페어링도 다 같은 맥락이다.

한국에서도 샴페인 애호가들이 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소위 크루기스트(Krugiste)라 불리는 열렬 팬도 많다고 들었다. 그렇다. 그런데 크루기스트보다는 그냥 크루그 러버(lover)라고 부르는 걸 선호한다(어떻게 느껴지기를 원치 않는다). 크루그 한 번이 팔릴 때 그 하나의 경험으로 다가가기를 원한다. 크루그 러버들은 기술적인 면보다는 그냥 크루그에서 택하는 것이다. 크루그만의 특별함이 있다. 음악이 있고, 스토리가 있다. 실제로 '제가 크루그를 처음 맛있게 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라든지 '누가 제가 크루그를 처음 소개했는지'라는 식으로 자신의 크루그 스토리를 즐겁게 말하는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

SHOWROOM

BEAUTY



펜할리곤스 포트레이트 컬렉션 펜할리곤스는 남성 넘치는 인물들의 특징을 향으로 표현한 브랜드의 프리미엄 향수 라인, '포트레이트 컬렉션'의 새로운 향수를 공개했다. 위대한 매력을 가진 미국 남성을 표현한 '미스타벤'은 사니몬과 커민 에센스의 조화로 시작되어 감각적인 시더우드와 마무리되며 색채하고 모던한 남성의 모습을 표현했다. 중성적이면서도 섹시한 스파이시 계열의 향취를 선사하는 '콘스탄스'는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표현했다. 문의 02-3443-1805

랑콤 입술루 루즈 드라마 마프 랑콤은 드라마틱한 아름다움을 완성해줄 입술루 루즈 드라마 마프를 출시했다. 텍스처가 매끄러운 이 제품은 입술에 편안하게 밀착되어 강렬한 색을 연출해주는 것은 물론, 피부와 오일을 결합한 포몰러로 입술의 미세한 주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완벽한 무광 피니시를 선사한다. 16가지 컬러로 선보인 입술루 드라마 마프 랑

스틱으로 매력적인 가을 립 메이킹업을 연출해볼 것. 문의 080-001-9500

리프래리 스킨 캐비아 프라이머 리프래리는 캐비아에 대한 브랜드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담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스킨 캐비아 프라이머'를 공개했다. 프라이머 버전으로 출시된 스킨 캐비아 리스 크림, 리스 크림 수어, 슬립 마스크 등 3가지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의 주력 제품인 스킨 캐비아 리스 크림 프라이머는 리프래리의 익스클루시브 썬루프 콤플렉스를 함유해 피민 효과와 함께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선사하는 것은 물론, 피부 장벽과 밀도, 피부 톤을 개선해 탄력 넘치는 유연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문의 080-511-6626

존버바토스 JVNJ BLUE 존버바토스는 미국의 싱

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닉 조나스와 협업해 완성한 'JVNJ BLUE'를 출시한다.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뉴욕의 밤거리를 가니 자유롭고 트렌디한 남성을 표현한 이 제품은 오감을 자극하는 프레시한 민트, 라벤더, 헤디온의 허브 어코디와 부드러운 깊이 있는 우디 향이 감미롭게 어우러진다. 존버바토스의 심플 디자인은 유서 깊은 채블라와 블랙 그레데이션과 은은한 핏도 도시의 밤을 표현한 보를 또한 매력적이다. 문의 02-3443-1805

디올 루즈 디올 울트라 루즈 립스틱 디올은 하우스의 코드와 장수를 담은 동시에 전설적인 뉴욕을 모던하고 시크한 레드 감성으로 재해석한 루즈 디올 울트라 루즈 립스틱을 새롭게 선보였다. 대담하고 눈부신 컬러와 편안한 촉촉한 사용감, 감각적인 세미 매트 피니시를 선사하는 이 제품은 47가지 잇 세이드를 포함한 177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으며, 12가지의 뛰어난 지속력을 자랑한다. 문의 080-342-9500

메르세데스-벤츠 맨 그레이 메르세데스-벤츠는 모던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가진 남성성을 표현한 맨 그레이 향



수를 공개했다. 시원하고 상쾌한 베르가모트로 시작해 포근한 우디 향으로 이어져, 엠버우드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무리는 우디 프레스시 계열의 향을 담았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와 함께 매끄러운 그레이 컬러로 완성한 보를 역시 세련된 벤츠 맨을 표현했다. 문의 02-3443-1805



랑콤, 리프래리



쇼파드, 샹페르



쇼파드, 샹페르

WATCH

오메가 레일 마스터 오메가는 데님에서 영감을 받은 레일 마스터를 공개했다. 밝은 화색의 슈퍼루미노바를 채운 오목한 형태의 인덱스와 함께 수직 브러시 처리한 블루진 다이얼이 특징인 이 제품은 청바지에 있는 컬러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레일 마스터 문구로 클래식 감성을 표현했다. 데님 소재의 스트랩과 스틸 리스 스틸 브라이슬릿, 27가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511-5797

IWC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1백50주년 에디션 IWC는 창립 1백50주년을 기념해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1백50주년 에디션'을 선보인다. 주얼리 컬렉션으로 재탄생된 이번 에디션은 주얼리 컬렉션의 화이트와 블루 다이얼을 적용한 37가지 모델로 선보일 수 있으며, 12개의 레커 처리 과정을 거쳐 은은하고 우아한 광택을 자랑한다. 또 IWC의 자체 제작 무브먼트인 69355 칼리버를 장착했으며, 투명한 사파이어 글라스 백 케이스를 통해 정교하게 제작된 무브먼트를 감

상할 수 있다. 문의 02-6905-3682

카르띠에 팬더드 까르띠에 주얼리 워치 카르띠에는 스틸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팬더드 까르띠에 주얼리 워치를 선보인다. 미디엄과 스몰, 2가지 모델로 만나볼 수 있으며, 유연한 브레이슬릿이 손목 위에 우아한 아름다움을 연출해준다. 오리지널 팬더드 까르띠에 워치를 화려하게 재해석한 이 주얼리 워치는 다이아몬드의 반짝임과 어울려 세련된 품격을 선사한다. 문의 1566-7277



The Longines Master Collection



오메가

FASHION



까날리 2019 S/S 컬렉션 까날리는 새로운 디자이너로 발탁된 이현욱과 함께한 2019 S/S 컬렉션을 공개했다. 평정, 활력, 견고함, 영감을 콘셉트로 감각적인 스포츠웨어부터 고급스럽고 정교한 슈트, 편안한 니트웨어 등 다양한 컬러와 소재의 조화가 돋보이는 룩을 선보였다. 문의 02-3467-8603

브룩스 브라더스 눈 아이본 리넨트 캠프 스포츠 셔츠 브룩스 브라더스는 캐주얼한 데일리 룩으로 추천하는 눈 아이본 리넨트 캠프 스포츠 셔츠를 출시한다. 최고급 소재인 수피마 코튼으로 제작해 고급스러운 광택이 돋보이며 편안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한다. 브랜드 상징인 버튼-다운 칼라와 6플릿 셔링 디테일 등으로 포인트를 더했다. 블루, 핑, 레드 등 3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2-2052-8822

생로랑 테디 바킷 백 생로랑은 심플하면서도 트렌디한 테디 바킷 백을 선보인다. 드로스트링 클로저, 커브 체인 숄더 스트랩을 더해 편안하면서도 실용적인 가방으로, 부드러운 램 스킨을 사용해 가벼운 것이 장점. 멀티컬러 카보숑과 메탈 소재의 아이코닉한 로고 디테일이 돋보이는 디자인의 테디 바킷 백은 생로랑만의 유니크함을 드러낸다. 문의 02-549-5741

구찌 플래시트랙 스니커즈 구찌는 스포티한 레이

시몬스 테라스 오픈 시몬스는 수면과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 취향을 반영한 '시몬스 테라스'를 경기도 이천에 오픈했다. 그린 콘셉트를 베이스로,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테라스를 비롯해 브랜드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헤리티지 앨리, 매트리스 램, 팜 가든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세계적인 아티스트 장 줄리앙의 전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수면에 관한 오랜 연구와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시몬스 테라스를 방문해볼 것. 문의 1899-8182



자형시 자형시
토즈 토즈
살바토레 페라가모 살바토레 페라가모
브룩스 브라더스 브룩스 브라더스

자형시 쟈크 백 자형시는 브랜드 아카이브의 빈티지 로장 주 패턴에서 영감을 받은 쟈크 백을 공개했다. 부드러운 영사 가죽과 지그재그 디테일의 자수 장식이 돋보이는 이번 컬렉션은 독특한 메탈 소재의 태슬 장식, 더블-G 로저를 더해 유니크함을 완성했다. 블랙, 파랑, 그린 포레스트 등 5가지의 매력적인 컬러와 미디엄, 라지 사이즈로 선보이는 쟈크 백은 데일리 백은 물론 세련된 이브닝 클러치로 제격이다. 문의 02-3479-1970

살바토레 페라가모 멘들리 라인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록에 감각적인 타임을 더해준 2018 F/W 컬렉션의 매력적인 슈트 '멘들리 라인'을 선보인다. 미니멀한 에퍼 디자인과 볼드한 볼륨의 혁신적인 실, 라지 사이즈의 더블 깃, 오너먼트 디테일로 아이코닉함을 더했으며, 이중 레더 솔을 사용해 뛰어난 착용감을 자랑한다. 27가지 컬러의 부츠와 블랙 컬러의 데미 슈즈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0-7854

버버리 페이먼트 트리밍 1983 체크 링크 백 버버리는 페이먼트 트리밍을 다룬 '1983 체크 링크 백'을 새롭게 선보인다. 버버리 아카이브의 1983 체크 패턴과 앞면의 링크 체인 장식, 그리고 골드 색상 두꺼운 유광 체인 스트랩이 돋보인다. 특히 백 자체에 포인트가 되는 강렬한 색상의 페이먼트 가죽 파이핑 디테일을 가미해 특별함을 더했다. 블루와 레드, 27가지

버버리 페이먼트 트리밍 1983 체크 링크 백 버버리는 페이먼트 트리밍을 다룬 '1983 체크 링크 백'을 새롭게 선보인다. 버버리 아카이브의 1983 체크 패턴과 앞면의 링크 체인 장식, 그리고 골드 색상 두꺼운 유광 체인 스트랩이 돋보인다. 특히 백 자체에 포인트가 되는 강렬한 색상의 페이먼트 가죽 파이핑 디테일을 가미해 특별함을 더했다. 블루와 레드, 27가지

Pom Pom Pop-up Store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패턴과 유니크한 참 장식으로 매력적인 룩을 완성해줄 보테가 베네타의 뉴 백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팝업스토어. 보테가 베네타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1층에서 '폼폼(Pom Pom)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폼폼 참 장식과 함께 익스클루시브 템부라 백을 만나볼 수 있다. 2018 F/W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인 템부라 백은 평평하고 둥근 바닥 위에 버킷 백 디자인을 다룬 것이 특징. 가방 측면에 직선 지퍼를 더해 알찬 버킷 백 디자인과는 다른 독특하고 우아한 실루엣을 완성했다. 페이즐리 체커, 인트레치아토 엠블렘, 인트레치아토 니파 등 총 37가지 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다. 가방과 스트랩이 연결되는 부위에 참 장식을 달 수 있는 별도의 링을 추가해 귀여운 폼폼 장식의 참 또는 동물 참으로 개성 넘치는 나만의 가방을 완성할 수 있다. 아이코닉한 스타일을 연출해줄 보테가 베네타의 템부라 백과 참 장식을 익스클루시브로 만나볼 수 있는 폼폼 팝업스토어를 방문해보자. 문의 02-2118-6106

LIFESTYLE

물감처럼 듯한 표면에 크기와 비례, 컬러를 이상적으로 조화시킨 캐비닛 1천9백만원대 **엘즈**.

침안하는 곳에 두어도 사람소운 공간이 되고, 색상 패턴이 고급스럽고, 양산 에디션 13만3천원 **비트라 by 루앙**.

세가지 모듈로 구성해 활용도가 높은 데시 디자인의 사이드 테이블 1백89만원 **아노에사**.

평평한 받침대와 꼭대기로 이루어진 형태로 로망 & 에르완 부를레 형제가 디자인한 테이블 램프 파이니 가격 미정 **두오모**.

프랑스 가구 디자이너 파예르 물랑의 디자인으로, 곡선을 통해 유기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라운지 체어 가격 미정 **엘터원클레드**.

벤도 스튜디오와 칼라베라에 의해 탄생시킨 디자인으로, 기능단량 블랙 라인으로 이루어진 스톱 겸 사이드 테이블 1백70만원대 **모로소**.

마블 상판과 가죽 소재의 대조적인 질감과 컬러 매치가 돋보이는 테이블 3백30만원 **보에**.

예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지닌 작품으로 하이메 아모와 합작해 탄생한 포슬린 베이스 4백57만원 **아드로**.

골격을 이루는 곡면 목재와 역시 곡면 처리한 합판이 결합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간혹가 일바 알토의 양치어 5백19만6천원 **에이투스**.

축대의 골격을 잊어안으로 표현해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캔들 스탠드 3만2천원 **데이글로우**.

자주 착용하는 액세서리 또는 캔들 등 인스타그램 오브제와 함께 연출하기 좋은 트레이 7만3천원 **비트라 by 루앙**.

플랫 톤 컬러를 선택한 테이블 수납고, 높은 양치어 디자인으로 활용도는 파예르 물랑의 디자인이다. 미트는 2만2천원 **엘터원클레드**.

슬라이딩 방식의 컬러 패널을 앞뒤로 배열해 파티션으로 활용 가능한 서랍장 1천1백91만6천원 **에이투스**.

나무와 황금 프레임의 단순한 구성과 탁자 뒤를 통과하는 평평한 브라켓으로 이동이 편리한 무어인의 테이블 66만원 **집필라**.

for living Selection

복잡다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거주장스러운 장식을 배제하고 본질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기능과 심미적 요소를 고려해 최소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아이템. *photographed by maeng minhwa*



GIVENCHY